



My name is Sister Mary Zachary Endress. I was born over ninety years ago in Altoona, Pennsylvania.

In elementary school I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St. Agnes. At the end of the eighth grade I was thinking of entering that community. My father thought that I should wait until I finished high school.

In high school I met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My mother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Cathedral School in Altoona. She admired them and encouraged me to get to know them better. When I did experience their charism I felt the call. Seventy-six years ago I petitioned the Sisters of Charity to accept me. They did!

In my beginning years I taught elementary school. Most of my 50 years of ministry was teaching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s and physics. When my patience with students became weak, I retired from the classroom.

To keep myself busy and generate some income for the community I tutored at Westmoreland Community College. I spent some years teaching short evening classes at the Westmoreland County Jail. I also tutored high school students.



Now that I am 94 years old I amuse myself by reading, solving puzzles and helping around Caritas Christi.

Nothing contributes more to my humility than remembering God's blessings. I do not think that eternity will be long enough for me to give thanks.





저는 메리 제커리 앤드리스 수녀(Sister Mary Zachary Endress)입니다.
90 여년 전 펜실베니아주 알투나에서 태어났지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성 아그네스회(Sisters of St. Agnes) 수녀님들이 가르쳤어요. 8 학년을 마쳤을 때 아그네스 회에 입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알투나 대성당 학교에서 씨튼 수녀님들께 배웠어요. 어머니는 수녀님들을 매우 존경해서 제가 수녀님들과

잘 알고 지내도록 했답니다. 수녀님들의 카리스마를 체험하면서 저는 성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6 년전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를 청원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수녀회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도생활 초기에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0 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제 인내심이 약해지면서 학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는 웨스트모어랜드 커뮤니티 대학(Westmoreland Community College)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야간강좌 강의를 했으며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94 세 이지만 책을 읽고 퍼즐을 하며 카리타스 크리스티에서 봉사를 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기억할 때 저는 가장 겸손해집니다. 그 분께 감사를 드리는 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